

행복도시 이야기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국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옆 복합체육시설 들어서다

'복합문화시설'과 '복합주차시설'에 이어 '복합체육시설' 착공으로 행복도시 정주환경 개선 기대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 (복합체육시설)



복합편의시설 제1-1공사 (복합주차시설)



복합편의시설 제1-4공사 (복합주차시설)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복합문화시설)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복합체육시설')를 11월 13일(월) 착공했다고 밝혔다.

'복합체육시설'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인근(現 제7주차장부지)에 사업비 1100억 원, 연면적 3만7937㎡ 규모로 수영장·다목적홀·실내풋살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로서 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행복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동시 시행방식(Fast Track)'을 도입하여 실시설계와 동시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2018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인 제7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의 청사 근무자 및 방문객은 인근에 조성하는 대체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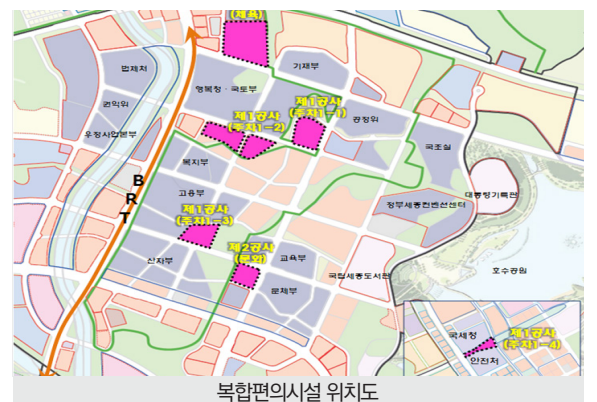
한편,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의 주차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편의시설(복합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복합주차시설)'을 청사 주변 6개 부지에 3개 공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복합주차시설'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총 4개 부지에 사업비 926억 원, 연면적 5만3204㎡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건립되며, 현재 청사 인근에 있는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 편의와 함께 도시 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문화시설'은 교육부 인근에 사업비 424억 원, 연면적 1만9735㎡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문화공간(공연·강좌·유아교육·동호회실 등)을 갖춘 시설로서 지난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에 완공되면 시민의 문화에

술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석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복합편의시설을 적기에 건립하여 일과 삶이 조화된 근무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객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합편의시설 위치도

행복청 ‘친환경 도시 세종’ 건설 박차

이산화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₂)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월 7일(화)부터 개정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말에 수립한 바 있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이산화탄소(CO₂)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후 새로 짓는 건물에는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적용된다. 평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1등급 이상 취득이 권장된다. 또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100)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이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건축연면적×단위 에너지사용량×지역계수) 산정 시 적용되었던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원별 설치규모×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산정 시 적용되는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한 것이다.

공동주택·단독주택의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도 마련되었다. 그간 공동주택 등은 마땅한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이 부재하여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하였으나, 에너지사용량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놀이터’ 조성 본격 추진

2018년 말, 행복도시 내 특색있는 놀이터 조성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탈피하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희망하는 ‘어린이 친화형 놀이터’를 도입하고자 관계기관 실무 특별팀(T/F)을 구성하였다.

이번 ‘특별팀(T/F)’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을 팀장으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하며, 이번 달부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복청은 올해 초부터 어린이 친화형놀이터 벤치마킹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하였으며, 놀이시설 전문가 편해문씨를 초청하여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행복도시 내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실무 특별팀(T/F)’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 위촉 및 학부모, 교사, 어린이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및 감리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설계, 공사 착공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아동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충분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진정한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출생률이 높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게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원수산 모험놀이터’ 같은 특색 있는 놀이터와 ‘유아숲체험시설(원수산 파랑새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해 왔다.

도심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확대

’17년 말까지 9개 교차로 추가 운영, 모니터링 후 지속 확대 여부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인근 다솜2로·다솜3로와 소담동 남세종로 등 9개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월 16일(목) 밝혔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직진신호 동안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하도록 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교차로 신호 대기시간을 30% 이상 줄여 교통흐름 개선과 연료낭비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유럽연합(EU)·미국 캐나다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는 교통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 출입구 등 교차로마다 교통 신호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교통흐름 단절이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고,

운전자는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과속신호 위반·교차로 꼬리 물기 등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세종시·세종경찰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도입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편도 2차선 이하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했으며,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운영시기는 표지판,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한 후, 소담동 남세종로 3개 교차로는 2017년 11월말에, 정부세종청사 인근 다솜2로·다솜3로는 2017년 12월말에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솜2로·다솜3로 6개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뿐만 아니라 차량 지체시간·보행자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신호주기도 함께 단축(140초 → 70초)할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차선 직진차량이 없고 녹색신호 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체제로 도심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준수와 주의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신호와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양보·배려를 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중심상업지구 ‘도시상징광장’ 2019년 개장

1단계 사업 발주...4면 스마트 미디어큐브, 대형 세종한글분수 등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도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이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인 ‘도시상징광장’ 1단계 조성사업을 발주했다

‘도시상징광장’은 행복도시의 중심상업지구인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을 가로지르는 약 1km의 구간에 폭 45~60m로 조성되며,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중앙녹지공간과 아트센터 및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밀집된 문화구역에 연결하는 입구로서, 행복도시의 핵심 상업거리가 될 ‘어반아트리움’과 십자(十)로 교차되도록 설계되어, 도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도시상징광장’은 공모를 통해 설계 개념으로 ‘광장을 국민이 스스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중앙공간을 주변보다 낮춰 광장의 중앙에 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계부에는 놀이와 피크닉,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그늘막을

조성했다. 그리고, 광장 하부에는 지하주차장(262대) 및 자전거보관소(40대)를 계획하여 도시상징광장 및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구역은 ‘도시상징광장’ 총 1km 구간 중 ‘국세청~아트센터’까지의 길이 600m 구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4면 스마트 미디어큐브(12m×12m×17m)뿐만 아니라, 3차원(3D) 노즐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통해 웅장한 멀티미디어 쇼를 연출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분수인 ‘세종한글분수(14m×46m)’ 등을 설치하여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327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상징광장’ 1단계 조성사업은 적격심사낙찰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후, 올해 연말에 착공하여 2019년 중순 경 개장할 예정이다.

* 적격심사낙찰제: 낙찰제한가격 이상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시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도시상징광장 조감도



도시상징광장 배치도

행복도시권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행복도시권 도로, 제설대책반 운영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절기 대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도로 총 288.69km에 대한 제설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11월 15일(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

행복청은 동절기 이상기후 및 기상특보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제설구간 ▲제설장비 준비현황 ▲제설자재 구비현황 ▲취약구간 선정 등을 협의*했다.

* 장비·자재 현황: 제설차량 50대, 염화칼슘 2,178톤, 소금 15,640톤, 모래 2,573㎥

행복도시권 제설작업에는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복청이 중심적인 역할(컨트롤 타워)을 수행하고, 기관 간에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 9개 기관: 행복청, 국토부 본산국토관리사무소,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유성구, 청주시, 공주시, 한국도지주택공사(NA) 세종특별본부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제설작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설시 행복도시권 모든 제설담당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Life



글 · 이화자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나의 파랑새는
행복도시 세종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줄임말 행복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복도시, 이중 의미의 행복 도시 세종으로 이주 2년,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내려온 곳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들 행복 도시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주 첫 해는 행복도시의 반대말처럼 불행 하였다. 편의 시설과 공공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세종 생활이 불편함 그 자체였고, 특히 3 분마다 오는 서울 시내버스와는 다르게 시내버스가 25분에 한 대씩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더욱이 나이가 50이 넘고 자주 정기 검진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이리저리 불편하다 보니 투덜투덜 투덜이가 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 행복 도시라고 하는 세종에서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이 화두인 나에게 행복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선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다. 관점을 바꾸어 보자는 마음을 먹고 투덜이 보다 열정을 가지고 뭘 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벨기에 작가 모리스 미테를링크 동화 ‘파랑새’의 틸틸과 미틸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나 또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하였다. 틸틸과 미틸은 멀리서 파랑새를 찾았다면 난 내 주변 가까운 곳, 행복 도시에서 파랑새 찾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각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저와 함께 출발~~ 관점을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세종에서의 좋은 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고, 나에게 행복의 파랑새는 이렇게 다가왔다.

첫 번째 파랑새는 좋은 무료 강의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많은 여러 프로그램 중 직접 선택하여 들은 수업은 ‘나만의 수제품 만들기’에서 친환경 제품 만드는 것을 접하였다. EM발효액, 천연 비누 만들기, 만능 크림, 세탁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며 향기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심리적 감성을 자극하여 깨우게 되었다.

두 번째 파랑새는 전문 강사 프로그램으로 다가왔다.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문가 양성 과정 진로 직업 지도사 강의는 여성가족부와 세종 시청의 지원을 받아 듣는 강의로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어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불타올랐고, 같이 듣는 나도 그 열정에 동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각자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으면 된다. 전문 강의이다 보니 경쟁률 또한 높다. 세종으로 이주하면서 일을 접고 내려 왔는데 이곳의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이어서 좋았다. TV드라마로 대리만족하는 50대에서 탈피하여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멋진 전문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준 기관에도 감사한다.

세 번째 파랑새는 질 높은 수준의 무료 음악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 각 동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 또는 세종호수공원에서 다양한 축제 등은 우리의 문화생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적 감성을 자극해 주고 있다.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문화적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행복 도시에 이주하여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네 번째 파랑새는 마음의 여유, 소소한 행복이다. 길가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서도 행복의 미소를 짓게 하였고, 흘러가는 구름,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파사로운 햇살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들로 다가왔다. 처음 느껴 보는 가슴 뭉클한 행복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행복의 감정, 감사의 감정이 계속 나에게 머물기를...

다섯 번째 파랑새는 자원 봉사로 다가왔다.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사서 봉사, 양지고등학교 도서관 사서 봉사는 많은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 고등학생들과 직접 마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양질의 사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다. 범지기마을10단지 주민들로 이루어진 아름가족봉사단은 매월 1회 단지 내 환경 정화 또는 주변 두루 뜰,재전 번 외래 식물 제거 작업,아파트 외부 길 환경 정화, 껌 떼기 작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아름가족봉사단 모든 가족들은 앞으로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행복 도시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찾아 쓰레기통 없는 도시 계획에 동참하고, 우리 아름가족봉사단의 모토 ‘가족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지지치 않고 꾸준히 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종으로 이주 전의 삶이 전무적인 삶이었다면, 행복도시 세종에서의 삶은 시간적인 여유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삶이 되었고, 위의 5가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다고 말하고 싶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각자 마음에 있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 | | |
|--|---|
| <p>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보장, 신분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p>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p>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p>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 | | | | |
|--|---|---|--|--|
| <p>건강</p> <p>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p> | <p>안전</p> <p>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p> | <p>환경</p> <p>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p> | <p>소비자 이익</p> <p>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p> | <p>공정경쟁</p> <p>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p> |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uman Resource Database

국가인재를 기다립니다

국민추천제

여러분들이 직접 국가인재를 추천해 주십시오.

국민추천 국가인재

• 직 위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대 상 직위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공무원포함)	• 시 기 언제나 • 방 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를 방문하여 주변인물을 추천(타천)하거나 본인을 추천(자천) • 활 용 관계법규에 따른 기준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관리
--	---

국민추천제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044-201-8066/8054 Fax 044-201-8072 E-mail hrdb@korea.kr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Policy on Korean Peninsula

열린 정책!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생각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듭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 '평화' 최우선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자 경제성 발전을 위한 토대

▶ '상호 존중'의 정신

북한통과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방법

-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외견 코너에 의견 게시
- 국민신문고 (www.apc.go.kr) 국민제언 코너에 의견 게시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외견 담당자 앞으로 편지

통일부

‘밀마루 전망대’ 및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설날, 추석 당일은 14:00부터 운영)



밀마루 전망대

위치_ 세종시 도음3로 58(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 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 세종시 어울로 247(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 044-867-7911~2

12월 문화행사 일정

행 사 명	일시(기간)	장 소	문 의
세종무용연합회 정기공연	12.5(화) 19: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행복청 044-200-1474
쌈 온 스크린(SAC on Screen) 유니버설 발레단 '지젤'	12.7(목) 19: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예술의전당 02-580-1340
세종 슈틸레 앙상블 창단공연	12.12(화) 19: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행복청 044-200-1474

※ 쌈 온 스크린(Sac on Screen) :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우수 공연, 전시 콘텐츠를 영상물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는 프로젝트
※ 공연(행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이야기
2017. 12. 1(금) Vol. 126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어진동)
www.naacc.go.kr
T. 044.200.3095 E. naaccadmin@korea.kr

디자인·제작 (주)자루매드

행복청
SNS 채널

facebook.com/happycitysejong

blog.naver.com/macc2030

twitter.com/HappycitySejong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검색해보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